제 1회 EHWA-Thon 기획서

팀 명	멜팅팟
프로젝트 소개	'배울림꽃'. '배'는 소리가 한곳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지는 의미를, '울림'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, '꽃'은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이화의 배꽃을 의미합니다. '배울림꽃'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큰 울림으로 퍼져나아가 이화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'이화여자대학교 청원 플랫폼'입니다.
문제 상황 및 솔루션	> Problem 1. 교내개선 서비스이지만 가장 높은 개선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'이화에 바라다' - 교내 커뮤니티 중 하나인 에*리타임에서 가장 많은 글을 차지한 주제는 총 7,140 개로 '개선 및 요구'에 관련된 글입니다(Ai 데이터 분석기반). 실제로 학교는 "이화에 바란다"라는 이름으로 정책 건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 만, 개선 요구의 전체 글(7,140) 중 이화에 바란다 문제점을 지적한 글은 총 1,288 개로 오히려 소통 창구로 활용되는 서비스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. - 실제 2016.09.04 "이화인의 소통창구 점검···학생 '이화에 바란다'에 한계 있어"라는 이화학보 기사와 2021.09.20 "'이화에 바란다'실효성논란"이화방송국 등 교내에서 여러차례 다룰 만큼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- 또한 '이화에 바란다'에 올라온 글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하나의 주제로 평균 20개가 넘은 글이 올라오는 등 양치기 글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의 효용성 문제로인한 추가 문제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. 2. 사용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운영진도 불편한 서비스 운영방식 - 민원 분류의 어려움, 문제점에 대한 카테고리 재분류의 불편함, 답변응답의 미지수 등 이화에 바란다 사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다수 보였고, 건의하고자 하는 학생과 해당 서비스를 확인하는 운영진들 또한 겪는 불편함들을 확인하였습니다. > Solution

이러한 문제에 대해 '조금 더 공적처리 방식의 소통창구 및 이화여대가 교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관심이 있다는 과정을 직접 보여줄 수 있게 하자'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국민청원이 국민에게 주는 효능감에 대한 논문에 근거하여 청원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교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과정 및 문제 처리 방식을 구성하였습니다. 또한 학생들 및 운영진들의 플랫폼을 따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유저의 사용 동선을 분리하였고 각각의 사용과정에서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기획하였습니다.

<솔루션의 차별성>

> 솔루션의 현실 발전가능성 고려

- 실제 총학생회와의 컨택을 통해 실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플랫폼 기획 및 개발을 설계하였습니다.

1.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근거로 기획한 'Ai기술'의 활용

- Ai기술을 실제 '이화에 바란다'과정 내 학생들과 운영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활용하여, 같은 문제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재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.

2. 많은 정보에 대한 직관성을 중심으로

- 청원의 무수한 내용과 과정속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청원의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레이아웃 및 표기 방식에 집중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.
-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이화전통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필요 정보를 먼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적은 컬러칩 사용으로 디자인의 화려함 보다는 정보전달에 집중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.

3. 실제 운영되는 순서를 고려한 화면 설계

- 청원 처리 과정을 토대로 화면 순서 설계 및 카테고리 분류를 하였고 과정속에서 손쉽게 Ai가 주는 서비스에 도달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.
- 사용자의 시선흐름과 사용성을 고려한 버튼 배치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 및 화면 혼선을 없도록 하였습니다.

4. 학생과 관리자의 영역 구분

- 학생과 관리자의 서비스 사용 영역을 고려하여 개발적으로 접근권한 및 서비스를 분리하였습니다.
- 플랫폼을 별도로 각각 디자인하여 사용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가치 제안

및

솔루션의 차별성

